

도덕 판단에서 이성과 감정의 상보성에 대한 신경과학의 설명과 도덕교육적 함의

김국현*
한국교원대학교

An exploration of complimentary relation between emotion and
reason in moral judgement from a standpoint of neuro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Kuk-Hyeon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paper discuss rela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in life and functions of emotion and reason in moral judgement and moral motivation. The contrast between reason and emo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moral psychology of the Western ethical tradition. However, if we turn to Wang Yang Myung's The Records of the Teachings of the Masters, there seems to be no such contrast of comparable importance. Wang does not employ the contrast between reason and emotion to assert the need for the primacy of reason. He does see complimentary rela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in moral cognition and moral motivation. Emotion and feeling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for moral awareness and moral behavior such as facilitating moral action choices, motivator for moral action, motivator to think, connecting conscious reason to basic biological needs, relating reason as a conscious logical processing to the complex contents and connections held in the subconscious. Through these functions, Emotions are tools of moral recognition and moral motivation. But for the most successful moral functioning, emotions need to be consciously examined by logical moral reasoning. Task of Moral education is an cultivation of moral emotion of students. And so, it is most important to design and implement moral education curriculum focused on reflecting emotion and feeling.

Key words : emotion, feeling, reason, moral judgement, moral motivation, neuroscience

* 교신저자 : 김국현, ethicskim@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3, 2015; Accepted December 10,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2015. Institute of Brain base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서론

교육은 어원적으로 각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은 선천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천적인 것에는 유전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과 모의 상호작용을 통해 태내에서 발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은 각 개인에게 내장된 특성을 파악하여 각 개인의 장점을 발달시키도록 조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경과학의 발달로 교육자들은 각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에 보다 깊이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밝힌 인간 뇌의 신경학적 기반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인간을 다른 생물들로부터 구별해 주는 특성들, 특히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발생과 작용 등에 대한 인간의 자기이해가 증가하고 있다. 신경과학과 윤리학의 관계 속성에 따라서 신경과학의 윤리(ethics of neuroscience)와 윤리학의 신경과학(neuroscience of ethics) 두 가지 입장이 구분된다(Scaglia, 2010). 윤리학의 신경과학은 도덕적 인지(moral cognition)의 신경학적 기반을 탐구한다면, 신경과학의 윤리는 신경과학 실천의 윤리와 뇌기능에 대한 기계적 연구의 사회적 함의, 신경과학 지식과 윤리 및 사회사상의 통합에 초점을 둔다.

사고 및 추론능력, 사회적 규범 준수와 협동능력,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 사고에 대한 사고를 뜻하는 메타인지(meta-cognition)로서 성찰(reflection)하는 능력 등 도덕성의 신경학적 기반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축적됨에 따라 도덕적 사고, 즉 추론과 판단, 도덕적 정서와 감정의 발생 기원, 작용 원리, 발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도덕과 교육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윤리에 대한 접근 방법들 중의 하나로 신경윤리를 새롭게 포함하였다. 도덕성 발달의 신경학적 기반에 대한 이해 자체가 학생들의 도덕성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확대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도덕과 교육에서, 특히 도덕성 발달의 원리와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심리학 분야에서는 신경과학

의 연구 성과를 교육의 설계와 실행 차원에서 반영하거나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덕성 발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콜버그(L. Kohlberg)에 의해서이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여전히 도덕과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왜, 그리고 어떻게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해명을 토대로 대체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신경과학의 해명은 도덕과 교육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되도록 조력할 수 있는 방안,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도덕성의 능력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하되 도덕성에서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방식들에 대한 확인, 그리고 각 개인의 도덕성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핵심은 도덕적 판단의 발달이다. 옳고 그름을 타당한 근거로 잘 판단하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 발달에 대한 후속 연구들에서 도덕적 사고가 도덕적 행동을 예언하는 힘은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도덕적 사고는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도덕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중의 하나이며 도덕적 추론능력과 함께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이 균형 있게 함께 발달할 때 도덕적 행동이 산출된다는 생각이 도덕성 발달 이론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도덕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문제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다. 학력에 따라 도덕성 발달 수준이 차이가 있고 도덕적 추론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 도덕적 정체성이 발달한 학생들은 도덕적 용어를 사용하여 자아정체성,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의 결과들은 도덕적 추론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도덕적 판단은 도덕성의 다른 요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 단, 도덕성 발달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도덕적 판단에서이성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정서와 감정은 도덕적 판단에서 억제되거나 이성애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성과 감정은 도덕적 판단의 두 요소이다. 두 요소는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덕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지 발달에 중심을 둔 종래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설명과 달리 정서와 감정은 도덕적 판단의 과정에서 인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인지의 해석 기능을 토해 통합한다.

정서와 감정은 개인이 대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기억에 담긴 경험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정한 경험은 정서와 감정으로 인해 기억으로 남는다. 그런데, 기억의 내용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기억을 떠올리는 정서 상태에 따라 기억의 내용은 달라진다. 정서과 감정에 의해 기억은 재구성되는 것이다. 도덕적 사고의 과정에서 정서와 감정은 인지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하지만 통합을 이루면서 옳고 그름과 그 근거를 산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적 판단에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상보적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도덕과 교육의 설계와 실행 차원에서 논의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정서와 이성의 상보성

1. 도덕성에서 정서와 감정의 지위

인간의 도덕적 사고와 행위에서 정서와 감정의 기능, 특히 특정 상황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인식의 초점을 집중시키는 정서와 가능의 인식 측면에서의 기능이 가지는 중요성, 행위를 동기화하는 정서와 감정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기초로 도덕성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과 교육의 뇌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뇌에 기반을 둔 도덕교육에 대한 교육적 접근도 구체화되고 있다.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서 정서와 감정은 이성

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고유의 도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서 변연계를 기반으로 한 정서와 감정이 먼저 발달하고 전두엽의 인지 기능이 보다 나중에 발달한다는 점에서 정서와 감정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 발달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서와 감정에 대한 오랜 관점은 정소와 감정은 상황에 종속되고 자의적이므로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정서와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충동이나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식과 정보처리에서 이성과는 구분되는 기능을 하며 사고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정서와 감정의 지위를 복원시키는 논의와 연구 성과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이비드 흄(D. Hume), 아담 스미스(A. Smith)는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적 삶에서 공감과 같은 정서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정서는 도덕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도덕적으로 옳고 좋은 행동이 산출되도록 하는 동기나 의지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도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덕적 인식,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성 및 정서와 감정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옳고 좋은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동기 발생에서 이성과 정서의 상보적 기능, 개인과 집단의 실제 삶에서 도덕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성과 정서의 개별적 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정서의 신경학적 기반 및 그 작용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도덕심리학 분야에서는 공감, 수치심 등 도덕적 정서의 발생, 제약 요인, 발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도덕교육에서의 접근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합리성, 이성에 기반을 둔 차가운 추론에 근거한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정서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경제적 행위자들의 커미트먼트(commitment) 행동에서 보이는 비합리성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해명은 경제적 행동에서 정서의 지위를 중시하는 전환을 심화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정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책임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같은 맥락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에서 의무판단과 책임판단은 도덕적 행위의 실행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선택 판단(choice judgment)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택 판단은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해명하기 위해 정서의 기능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판단과 동기화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성찰은 메타 인지(meta-cognition)로서 개인이 자신의 인지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인지과정에 대한 주체적 평가 및 사정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는 함께 작용한다. 자기성찰은 인간의 학습과 기억의 기반이 되는 정서가 주체의 기억을 회상하고 재구성하고 사고와 행동의 새로운 대안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그런데 자기성찰의 과정은 단지 인지과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선다. 즉 생각과 행동의 새로운 통찰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자기성찰은 부정적 정서의 촉발 경험으로 시작되고 회상되는 기억도 사실상 정서의 내용이며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 역시 정서임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기 정서에 대한 인식과 통찰은 개인의 삶의 의미 발견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며 학교교육에서 개인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교육의 설계와 실행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함축한다.

2. 도덕성 발달에서 이성과 감정의 상보성

오랫동안 이성과 정서는 상호 대립적이거나 이성과 정서 중의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우선적이거나 다른 것을 통제와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관계로 잘못 이해하거나 가르쳐져 왔다. 개인의 기억, 기억을 구성하는 경험, 경험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이성이나 정서 어느 하나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마음에서 이성과 정서는 개인의 가치를 성취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의식적 이성은 무의식의 자료들을 세계의

사실들과 접촉하고 확인함으로써 검증한다. 정서는 개인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이성의 노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관련 정보와 통합을 알려준다.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의 의미, 즉 욕구, 가치, 목적 등을 끌어내는 능력,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정보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의 방향을 융통성 있게 수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Enright, 2002).

이성과 감정은 두 개의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이성(이성)은 전통과 한계, 가치관과 이상(ideals)을 사용해서 욕망을 무한정으로 만족시키려는 감정의 시도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이성(이성)은 인간의 도덕적 인식으로서 드러난다. 개인 내부에서 욕망과 갈등이 없을 때에 이성과 감정은 하나이다. 그러나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갈등 상황에서 이성과 정서는 나뉜다. 갈등 상황에서 인식될 수 있는 이성과 감정의 대립과 분열은 자신 안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욕망의 주인인가 아니면 욕망의 노예인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가? 또는 왜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가?”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딜레마나 갈등은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De Gregorio, 2000).

이성과 정서는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상호작용한다. 이성은 이성을 감시하며 정서를 감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서는 정서를 감시하며 이성을 감시하여야 한다. 이성과 정서 양자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이성과 정서가 모두 활성화되고 조화를 이루는 개인의 평형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에서 정서와 이성이 상충할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보와 맥락을 놓치지 않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는 관련된 정보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따라서 정서는 의식적 이성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의식적 이성만이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을 타당하게 하고 확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이성과 논리를 적용해야만 한다(Enright, 2002).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경과학 관점의 문헌들에서 이성과 정서는 사고-개념-논리에 근거한 처리

와 직관적 처리 과정으로 각각 설명된다. 의식적, 숙고적, 분석적 처리 과정은 이성적 합리적 사고이며 무의식적, 자동적, 경험적 처리 과정은 정서적 및 감정적 사고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두 가지 유형의 처리 과정이 결합된 결과이지만 처리 과정이 언제나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Zhong, 2011).

이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느낄 수 없다. 개인은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통해 자신의 욕구, 가치, 선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의식적 이성은 의도, 가치, 메타가치 등 특정한 목적들을 선택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무의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들을 제공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감정이 없으면 논리적 결론을 개인의 욕구와 목적들에 관련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과 감정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은 개인의 번영에 중요하다(Enright, 2002).

이성과 정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합되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어떤 가치가 자신의 인격에서 중심을 차지하는지와 같은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기억에 담긴 사고의 내용과 감정의 내용들을 온전히 떠올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 의도, 목적 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숙고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3. 도덕적 인식과 행위에서 정서

가. 앎과 행위의 동기로서의 정서

유교사상에서 정서와 감정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너무나 다양한 경로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행합일(知行合一)에 대한 왕양명의 지행합일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의 삶에서 정서와 감정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의 정서와 감정에 대한 설명에서 정서는 도덕적 인식을 이끌고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동기의 원천이라 할 수 있

다.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들어 있다. 도덕적 인지와 정서를 구분하는 서양의 심리학과 도덕성 이론의 관점과는 상이한 접근을 보여준다.

왕양명의 『傳習錄』 상권 제5조목의 내용은 정서가 도덕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하고 형에게는 마땅히 공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도리어 효도하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합니다...그것은 이미 사욕(私欲)에 의해 앎과 행위가 가로막힌 것이지...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이다. 『大學』에서는 하나의 참된 앎과 행위를 지적하여, “마치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듯이 하고,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라”고 하였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은 앎에 속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이미 저절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 쳐다본 뒤에 또 하나의 마음을 세워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악취를 맡는 것은 앎에 속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다. 악취를 맡았을 때 이미 저절로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 맡은 뒤에 따로 하나의 마음을 세워서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코가 막힌 사람은 비록 악취가 나는 것을 앞에서 보더라도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몹시 싫어하지 않는데, 이것은 아직 냄새를 알지 못한 것이다.

위의 비유적 설명에서는 앎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는 앎과 행위의 본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앎과 행위에서 정서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정서는 앎을 방해한다. 개인이 자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사욕에 의해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서는 앎을 구성하는 기반으로서 앎의 원천이며 행위의 동기화 요소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과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따라서 앎은 정서와 감정의 기능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지각에는 감정이 병행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의

토대로서 개인의 정서적 경험이 강조된다.

아픔을 안다고 할 경우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아픔을 겪어봐야 비로소 아픔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추위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이미 추위를 겪어본 것이며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배고픔을 겪어본 것이니 지행을 어찌 나눌 수 있는가?

만약 치통 경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치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치통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기초로서 개인 주체의 경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사상의 서(恕)의 개념은 자기급인(推己及人), 즉 나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맞게 매우 현실적으로 공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에 내재된 개인의 기억된 정서와 감정이라는 앞의 요소가 타인의 정서와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서와 감정은 앞에서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및 의미 제공

우리의 삶에서 정서는 행동 선택의 촉진 기능, 행동의 동기화 기능, 사고의 동기화, 의식적 추론을 기본적인 생물적 욕구에 연결하는 기능, 의식적 이성인 무의식의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Enright, 2002). 정서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기로 한다.

첫째, 정서의 행동 촉진 기능은 특히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 분명하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선택 판단은 정서와 감정에 의한 직관적 판단이다. 도덕 규칙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과 도덕적 판단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고 유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하이트(J. Haidt)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근거

로 도덕적 판단은 성찰이나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옳고 그름에 대한 빠른 직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도덕적 판단에서 이성의 우선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단지 정서가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넘어선다(Zhong, 2011). 도덕적 판단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하는 직관은 진화적으로 선택되고 문화, 관습, 사회화 과정에 의해 형성된 내적이고 평가적인 감정을 말한다. 그가 발간한 책 Emotional Dog, Its Rational Tail은 그의 정서와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하이트는 도덕적 판단에서 정서와 감정의 주도, 그리고 결정 이후 합리성에 의한 정당화 기능을 주장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다양한 선택 대안들 각각의 이익이나 차선택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사고의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실상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가 판단의 결과로서 ‘X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X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서와 감정이 우선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것처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 선택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신경과학자인 그린(J. Green)은 사고의 이중과정모델(dual process model) 모델을 제안한다. 그린은 사고를 자동모드와 수동모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동모드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직관적 사고를 말한다. 수동모드는 논리적 추론의 절차를 거친 판단과 의사결정을 말한다.

둘째, 정서는 행동을 동기화하는 기능을 한다. 대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대상에 획득하기 위한 행동을 촉진하거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한 동기가 없을 때 행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울할 때 개인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반두라(A.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은 정서가 행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잘 설명한다. 개인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 바람직한 변화를 산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은 개인의 과거에 유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대리 경험,

언어 설득, 정서 상태에 기초한다. 개인의 효능감은 정서와 감정을 통해 발생한다.

셋째, 감정은 사고하도록 한다. 모든 생각 이면에는 열정, 욕구와 같은 사고를 추동하는 힘이 있다. 폴라니(K. Polanyi)는 열정(passion)을 지식을 추구하도록 하는 힘으로 든다. 신경과학자 다마지오(A. R. Damasio)는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감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정이 없으면 적절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감정은 의식적으로 추론하는 마음을 기본적인 생물적 욕구에 연결한다. 만약 정서의 원천이 백지상태라면 자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인식할 수 없고 이성만으로는 평가할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이성인 의식적인 논리적 처리과정으로서 무의식에 담긴 복잡한 내용과 연결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적절히 작동할 수 없다. 의식적 이성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서를 통해 무의식의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다. 정서는 자기 자신, 세계, 자신의 의도와 관련된 자료들에 주의를 돌린다. 무의식은 이성과 감정의 원천으로서 논리적이며 윤리적이다. 무의식은 본능적 열정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쾌락이나 사랑의 문제에 감정은 정확한 논리로 대처한다(De Gregorio, 2000).

인간의 합리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기능을 이해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감정의 역할은 무시되었고 감정은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심리학자 제이존크(R. B. Zajonc)의 연구를 계기로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감정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올바르게 평가되기 시작했다.

정서는 인식(recognition)의 수단이다. 정서는 자신의 상태, 본성, 욕구에 대한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적인 지각이 세계에 관한 것이라면 정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조사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것들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성적 지식의 발달 없이는 직접적 감각을 통해 얻은 것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개인의 더 복잡한 정서는 욕구와 삶으로써 학습하고 행한 것이다(Enright, 2002).

흔히 사고와 감정이 상충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성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생각해 보면, 인지에 속하는 고정관념은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한다. 의사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확인하기를 원하거나 자신이 이미 내려놓은 주장이나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도록 한다. 고정관념의 이러한 작용을 고려할 때 감정은 사고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희소한 자원이나 기회를 분배하여야 하는 경우, 주체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참조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 분노, 공정성 등에 따른 감정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추론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정은 사고의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정서의 기능들을 고려할 때, 이성의 규칙 기반의 사고와 논리적 추론 과정, 그리고 정서의 직관적 판단이나 무의식적 평가 과정의 상보성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서와 감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육적 적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물과 현상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단의 과정에 투입하여 옳고 좋은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서와 이성의 상호작용 및 상보성이 필요하다. 특히 옳고 그름의 문제, 즉 특정 판단과 행동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복지, 그리고 공동선의 실현 등과 관련되는 도덕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서와 감정에 대한 고려, 이성과 정서가 각기 행하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덕성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 정서는 윤리적 탐구의 동력을 제공한다. 개인은 윤리적 탐구의 대상에 대해 정서적으로 충분한 흥미를 가져야 하며 집중을 방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진리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씨름하는 사람은 옳은 행하고

악을 피하는 데 정서적으로 전념한다. 개인의 정서가 평가적 판단에 스며들어야만 도덕적으로 옳은 것에 대한 규정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전환된다(Callahan, 1998). 윤리적 의사결정은 옳은 것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정서적 헌신이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야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보다 옳고 좋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의식적으로 성찰하는 시간과 습관, 정서와 감정을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의도, 욕구를 실현하는 데 관련시키는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Ⅲ. 도덕과 교육에서 정서와 감정교육

도덕성 발달에서 정서와 감정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도덕과 교육의 설계와 실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기의 뇌 발달 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도덕성 발달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은 개인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는 목적을 추구한다. 도덕성은 이성과 정서,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성과 정서의 균형적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 설계, 보다 효과적으로 이성과 감정이 상호작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서와 감정의 기능, 이성의 기능,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화, 품성을 함양하는 원리와 방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도덕과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감각에 의해 제공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통합하는 능력인 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 도덕과 교육 설계와 실행이다. 정서는 지식과 가치의 통합에 근본적이다. 정서는 인지와 판단의 작용에서 핵심적이다. 정서는 어떤 것이 욕구를 충족하거나 좌절시킬지를 알려주며 학생들의 가치 발달에

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정서는 실제와 무의식 모두에서 이성이 관련 정보들에 주목하도록 돕는다. 개인의 성공적 기능을 위해서는 정서의 본질과 원인, 정서의 의미를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Enright, 2002).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이 도덕과 학문공동체에서 더욱 진진하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협력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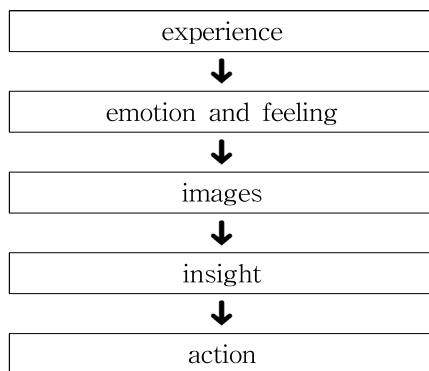
첫째, 도덕과 교육과정의 설계 차원에서 도덕적 정서와 감정에 대한 학습 주제를 늘이고 학교 급별 도덕성 발달을 위한 교육 목표를 청소년의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에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설정하여야 한다. 정서와 감정이 도덕적 판단과 사고에서 행하는 기능에 대해 학문적 연구 성과를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도덕적 정서와 감정에 대해 학생들이 성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통찰을 얻어 자신의 도덕적 삶에서 실천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정서와 감정에 대한 성찰학습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덕적 성찰은 도덕적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가치, 신념, 행동 습관이나 유형, 감정을 분석적으로 확인하고 통찰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행동 대안을 구성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학습의 과정이다. 도덕적 성찰을 통해 개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재형성한다.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사고와 판단,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 가치, 성격, 흥미, 보상 등은 도덕적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도덕적 성찰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도덕적 미래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동기를 스스로 발생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성찰은 의미 있는 통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성찰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일종의 구조나 패턴이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성찰의 과정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나선형으로 연결된다. 성

찰의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들어갈 때 감정을 직면하는 단계 → 감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미지가 떠오르는 단계 → 이미지들을 성찰하고 의문을 품음으로써 통찰이 번뜩이는 단계 → 통찰이 개인을 행위로 이끄는 단계로 이루어진다(Killen & De Beer, 1994). 정서와 감정을 중심으로 한 성찰의 과정을 간략한 절차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Fig. 1).



[Figure 1] Movement toward insight based on the process of reflection

위의 성찰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정서와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적 경험의 기억에 포함된 부정적 정서와 감정을 직면하여 특정 경험 상황에서 느낀 정서와 감정의 상태, 그리고 정서와 감정이 자신의 판단과 행위 경험에 미친 영향을 숙고하는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정적 정서와 감정을 담은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좋지 않은 경험을 극복하고 미래의 긍정적 자아를 상상하는 힘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어떻게 자신의 가치, 욕구,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해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동기화에서 이성과 정서의 기능의 상보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서와 감정은 도덕적 판단의 과정에서 이성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에 필요한 사실들을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며 보다 잘 이해하여야 하는 사실들에 인식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정서와 감정은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체성이나 도덕적 분노, 신뢰, 공감을 제공함으로써 판단을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도덕적 성공(moral success)을 산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정서와 감정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서는 이성보다 더 빨리 성숙하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도덕과 교육은 학습 주제들을 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화, 품성 또는 실행력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 이성과 정서 및 감정의 요소들을 균형 있게 포함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도덕적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와 감정이 도덕적 원칙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를 구체적인 경험 사례들을 통해 분석적으로 숙고해보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개발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개인의 경험에 대한 성찰활동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덕적 성찰을 위한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긍정적으로 관련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수업 및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Callahan, S. (1988). The Role of Emotion in Ethical Decision Making. Hastings Center Report, June/July, 9-14.
- Zhong, C. (2011). The Ethical Dangers of Deliberative

Decision Mak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6(1), 1-25.

De Gregorio, J. (2003). *My Head and My Heart*. (Kim M. G. Trans.). Seoul: Korea Psychotherapy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Enright, M. F. (2002). If "Emotions Are Not Tools of Cognition," What Are They?: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 and Emotion. *The Journal of Ayn Rand Studies*, 4(1), 25-67.

Killen, P. O. and De Beer, J. (2013). *The Art of Theological Reflection*. (Kwon, S. Y. Tran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94)

Scaglia, B. E. (2010). *Applied Ethics: Neuroethics and other types of Applied Ethics*. St. Louis: Webster's Digital Services.

Wang, Y. M. (2001). *Records of the Teachings of the Master* (Jeong I. J., & Han J. G. Trans.). Seoul: Cheonggye Publisher.